韓國心理學會誌 : 社會 및 性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09, Vol. 23, No. 2, 81～101

욕구충족 및 통제감 지각이 생애후기 성인의 대인애착 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애착 선행변인*

이주일 강연욱 박군석 유 경+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본 논문은 생애후기 성인의 대인애착 성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해 이뤄진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욕구충족과 통제감이 생애후기 성인의 대인애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안녕감과 애착간의 관계에 있어서 욕구충족과 통제감 지각이 미치는 조절변인으로서의 역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연령, 성별, 자녀수 등의 객관적인 인구학적 변인들보다도 자녀관계 만족, 경제상태 지각, 건강상태 지각과 같은 개인이 평가하는 주관적인 인구학적 변인들이 애착을 더 많이 설명해주었다. 욕구충족과 통제감은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하고도 안전애착과 불안애착을 유의하게 설명해주었다. 또한 욕구충족과 통제감은 애착과 안녕감 간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고 장래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욕구충족, 통제감, 성인 애착, 안녕감, 애착 선행변인

개인의 애착경향성은 상당히 안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 유아기에 형성된 애착경향성은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Bowlby, 1980; Bradley & Cafferty, 2001). 애착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는 아동과 양육자 특히 엄마와의 관계에서 주로 연구가 되었고, 성인애착에 대한 연구들도 대부분은 대학생들의 이성 파트너에 대한 애착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었다. 최근 들어 노인의 평균 수명이 예전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가고, 각 국의 고령화 속도가 일반사람들의 예측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빨라지면서 노인들과 노인을 부양하여야 하는 자녀들 간의 관계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여러 연구자들이 어머니와 유아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애착기제가 유아기 이후 개인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면서 인생 후반기에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애착관계는 유아기 시절과 역전이 되면서 자녀와 부모간의 관계형성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어떠해야 한다는 사회적 함의와 상관없이 이 문제는 이제 모든 가정의 뜨거운 문제로 부상하였다. 자녀와 부모간의 관계형성에 있어 자녀나

* 본 연구는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411-J01902).
+ 교신저자 : 이주일, (200-70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번지,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33) 248-1723,
E-mail : jilee@hallym.ac.kr

www.kci.go.kr

부모가 형성한 애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역시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컨대, Cicirelli(1996)는 성인 자녀와 부모간의 부양의식 형성에 애착이론을 적용하여 자녀가 부모에게 형성한 애착이 부모에 대한 부양행동을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비해 부양행동을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의무감이나 죄책감을 피하려는 욕구로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자들도 있다(Scultz, Biegel, Morycz, & Visintainer, 1989). 한국 사회도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부양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요 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었으며, 노인 부양행동에 있어 애착이론이 가지는 함의는 크다고 하겠다.

애착형성 이론을 성인후기 특히 노인에 적용시키는 연구들은 크게 세 분야로 정리가 된다(Bradley & Cafferty, 2001). 첫 번째 영역은 앞에서 설명한 애착과 부양관계, 특히 만성질환을 가진 부모부양에 관한 연구들이다. 부모와 자녀 간에 형성된 애착이나 부모가 자녀에게 가진 애착성향, 자녀가 부모에게 가진 애착성향 등이 부양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다(Cicirelli, 1996). 이런 연구들은 만성적인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은 유아와 비슷한 특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Miesen, 1998). 두 번째 영역은 애착과 사별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상실감, 비통함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다. 특히 노인이 되면 주위의 친구나 배우자, 심지어는 자녀와 사별하거나 영구적으로 헤어져야 하는 슬픔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연구자들은 이런 사별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애착이론을 통해서 찾고자 한다(Mikulincer & Florian, 1996; Parkes, 1991; Sable, 1989; Scharlach, 1991). 세 번째 영역은 애착형성과 노인의 안녕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다. 안정적인 애착형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아동이나 청년들 대상 연구 패러다임을 노인들 표본에 적용시키는 경우이다. 이들 연구들은 직접 애착을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여 애착과 관련된 특성을 측정하였다. 예컨대 Park와 Vandenberg(1994)는 노인 표본들을 대상으로 '분리성향(separation orientation)'을 조사하여 과도하게 의존적인 노인들이 자기 스스로 활동하고자 하는 노인들보다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유사한 다른 연구에서도 성인 자녀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여성 노인들의 사회적, 심리적 및 신체적 안녕감이 그렇지 않은 여성 노인들에 비해 낮았다. 기존에 검증된 애착척도인 성인 애착 인터뷰(AAI; George, Kaplan, & Main, 1996)를 사용한 Wensauer와 Grossman(1995)의 연구에서도 안정적인 애착 스타일은 안녕감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의 애착형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연구로 아동이나 성인초기의 애착형성에 대한 연구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측정해야 하는 관계로 측정상의 여러 애로사항(예 : 기억의 문제, 이해의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편이다. 측정의 문제를 간소화시키기 위해 본 연구는 Hazan 과 Shaver(1993)가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비교적 단순하게 제작되어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하고, 애착 유형선택과 애착정도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밝혀진 많은 비교자료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특히 성인후기의 애착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심을 갖고 이루어졌다. 기초적인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먼저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지각 등 인구학적 차이에 따른 애착형성의 차이를 분석하여 이런 요인들이 후기성인의 애착형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로서 욕구충족 및 통제감과 애착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고, 마지막으로 욕구충족 및 자기통제감의 형성이 애착형성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구학적 조건과 애착형성

노인기에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많은 인구학적 요인들이 영향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배우자 유무, 경제상황, 건강상태에 특히 관심을 가졌다. 첫째, Doherty와 Feeney(2004)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애착대상은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주요한 애착대상으로 배우자를 선정한 비율이 76.8%였고, 그 외에 어머니 8.2%, 친구 6.5%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무는 성인의 애착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고, 노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대인관계에서 더 강력하게 작용하여 서로 의지하는 경

www.kci.go.kr

우가 많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 비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것이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조건도 애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 여겨진다. 경제적 수준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종류를 결정해준다(Warr, 1987). 즉, 사용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가 있으면 이를 이용하여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남현주와 이현지의 연구(2005)에서 경제적 수준은 우울감과 -.22의 유의미한 상관, 통제감과는 .33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경제적인 염려는 우울감과는 -.51, 삶의 만족도와는 .43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런 결과들로 유추해 볼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정신적인 자원을 더 보유하게 되므로 보다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많을 것이다.

세 번째로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각이 애착형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유아와 비슷한 상태로 변하게 되어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Miesen, 1992). 특히 노인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개인의 건강상태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건강하지 못할수록 더 애착대상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이다. 또한 애착과 건강상태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들은 애착이 질병관련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Hunter & Maunder, 2001), 애착유형이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걱정, 설명되지 않는 신체질환, 운동이나 영양상태와 같은 건강관련 활동수준 등과 관련이 있으며, 애착이 만성질병의 인지적 지각 및 평가와 관련 있음을 보여준다(Meredith, Ownsworth, & Strong, 2008). 이런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안전애착 형성을 잘 못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가설 1. 배우자 유무, 경제상황, 건강상태는 노인의 애착형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1-1. 노인의 배우자유무는 안전애착 성향과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1-2. 노인의 경제상황 지각은 안전 애착성향과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1-3. 노인의 건강상태는 안전애착과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욕구충족과 애착형성

인간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Maslow(1965)는 기초적 욕구, 소속감의 욕구, 관계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로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욕구 충족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심리적 욕구가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이주일, 정지원 및 이정미(2006)의 연구에서는 Maslow가 제기한 욕구의 충족이 안정적인 애착형성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춘천과 서울에 거주하는 약 3,500명의 국내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들의 연구에서 Maslow의 5단계의 욕구 충족이 안전애착을 설명해주는 양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지지나 가까운 친지 등과의 만남 빈도와 같은 사회적 지지망, 건강상태 및 만성적 질병 수, 규칙적인 식습관 같은 건강 및 생활습관, 교육 연수, 경제상황과 같은 사회배경보다도 안전애착을 설명해주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Hazan과 Shaver(1993)의 연구에서 사용한 한 단락으로 구성된 문장 기술형 평가만으로 안전애착을 측정하였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측정한 심리적 욕구가 너무 많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측정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어떤 욕구충족이 애착을 설명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Ryan과 Deci(2000)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로 자율성 욕구, 유능성 욕구, 관계성 욕구를 들고, 이 세 영역에 대한 자기결정 욕구가 인간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라고 주장하였다. 최근 이명희와 김아영(2008)은 Ryan과 Deci(2000)의 기본적 심리 욕구를 측정하는 척도의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화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기본적 심리욕구에서 자율성 욕구란 '자신의 행동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지각하여 자신이 행동에 대한 주체이고 조절자라는 신념'을 갖고자 하는 욕구이고, 유능성 욕구란 '개인이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과 재능을 사용할 기회들을 경험할 때 충족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유능한 것으로 지각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는 것이다. 한편 관계성 욕구란 '다른 사람과 관심을 주고받는다는 느낌과 다른 개인들 및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이명희, 김아영, 2008). 한국형 척도의 타당도에 대한 이들의 연구에서 자율성 욕구는 자기조절성향과 정적 상관, 유능성 욕구는

www.kci.go.kr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정적 상관, 관계성 욕구는 교사, 친구, 부모와의 관계성 성향과 정적인 상관을 보여주었으며, 세 욕구 모두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세 척도가 합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28%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Ryan과 Deci(2000)는 이 세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개인은 성장감, 통합감, 안녕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았다.

LaGuardia, Ryan, Couchman과 Deci(2000)는 자신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설정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의 충족과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관계설문지로 측정한 애착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관계설문지는 전반적인 안정애착도와 자신에 대한 안전애착, 타인에 대한 안전 애착정도를 측정하게 해준다. 욕구충족은 어머니, 아버지, 이성친구, 최고 친구, 동거인, 중요인물로 나누어 각 관계대상과 관계를 맺을 때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는지를 측정하였다. 그 후 각 관계대상에 대한 욕구충족도가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각 관계에 대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욕구충족은 전반적인 안전 애착, 자신에 대한 안전애착, 타인에 대한 안전애착을 모두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 대인관계 대상에 대해 욕구충족이 높을수록 안전애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에서 애착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관계성 욕구에 대한 충족을 제외하고 자율성 욕구, 유능성 욕구충족으로 나누어 안전애착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자율성 욕구의 충족은 거의 모든 경우에 안전애착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자율성 욕구충족 보다는 관계강도가 낮았지만 유능성 욕구충족도 안전애착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LaGuardia 등(2000)의 연구는 안전애착, 불안애착, 회피애착을 직접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욕구충족과 애착과의 관련성을 최초로 살펴본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안전애착정도를 측정해서 욕구충족과의 관련성을 보고자 하였고, 욕구충족은 안전애착과 정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가설 2. 욕구 충족은 애착형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욕구 충족 수준이 높으면 안정적인 애착 수준은 높고, 불안정한 애착 성향은 낮을 것이다.

통제감 지각과 애착형성

자신의 삶에 대해 통제감을 갖고자 하는 것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든 사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사항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통제감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Rotter(1966)에 의해 제기 되었다. 노년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 삶의 통제력을 잃게 되므로 통제감 지각이 다른 어느 세대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건강하던 사람이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선고를 받고 이를 불치병으로 여기게 되는 순간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젊은 시절에 자신이 통제할 수 있던 주위 상황과 자신에 대해 통제력을 잃게 되는 노인기에 접어들게 되면 노인의 삶에 많은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 통제감과 삶의 만족도간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삶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높게 지각하는 여성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Johnston, 1981). 지각된 통제감과 심리적, 신체적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6년간 종단적 연구에서도 연구 초기에 자신의 삶에 대해 통제감을 높게 지각한 여성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노인에 비해 6년 후 신체 기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력이 높은 여성들은 자기보호 행동과 건강증진 활동에도 더욱 열심히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allhagen, Strawbridge, Kaplan, & Cohen, 1994). 통제력과 우울증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외적인 통제소재를 가진 노인들은 내적인 통제소재를 가진 노인보다 우울증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leftaras, 1997). 국내노인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여성노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증 정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지각된 통제감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통제감이 우울증에 끼치는 영향은 경제적 사정에 대한 염려나 결혼상태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현주, 이현지, 2005). 이들의 연구에서 지각된 통제감은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감과 애착간의 관계를 직접 살펴본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앞서 설명한 통제감의 역할을 보여주는 연구들을 볼 때 통제감 지각은 개인의 대인관계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즉, 삶에 대해 통제감이 높으면 주위사람들과의 관계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거나 떠날 거라는 걱정을 하지 않게 되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www.kci.go.kr

될 것이다. 따라서 통제감이 높은 사람들은 주위사람들에 대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 3. 통제감 지각은 애착형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 수준이 높으면, 안정적인 애착 성향은 높지만 불안정한 애착 성향은 낮을 것이다.

불안정 애착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욕구충족 및 통제감 지각의 역할

이전 연구들은 안정적인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사이는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이주일 등, 2006; La Guardia, Ryan, Couchman, & Deci, 2000). 이 관계를 역으로 해석하면 불안정한 애착은 안녕감과 부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불안정한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조절 또는 매개해주는 변인을 찾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La Guardia 등, 2000; Wei, Shaffer, Young, & Zakalik, 2005). 이런 조절변인 또는 매개변인을 찾으려는 시도는 불안정한 애착에 대한 인위적인 처치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상담이나 치료법을 찾고자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불안정한 애착을 극복하게 해주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최근연구는 심리적 욕구충족이 불안정한 애착과 수치심, 우울, 고독감과 같은 심리적 안녕감 간을 매개해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Wei 등, 2005). 이들의 연구에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 충족과 부적인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 주었고, 이런 부적관계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을 경험하게 되면 심리적 욕구가 저하되어 개인은 수치심, 우울감,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또한 개인이 불안정 애착을 경험하더라도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심리적 안녕감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 심리적 욕구 충족이 애착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불안정 애착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만이 아니라 조절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유능성이나 자율성 욕구충족은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보여 진다. 마찬가지로 통제감 지각도 조절변인으로서 역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즉, 주위사람들과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였더라도, 욕구충족이나 통제감 향상이 이루어지면 안녕감의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욕구충족과 통제감의 조절변인으로서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설 4. 욕구충족과 통제감 지각은 애착과 안녕감간의 관계를 조절해줄 것이다. 즉 불안정 애착자라도 욕구충족도와 통제감 지각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안녕감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미국 뉴욕주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출신으로 미국으로 이민간 50세 이상의 성인후기에 들어선 성인이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참여자 수는 254명이었고 실제 통계분석은 결측치를 제외하고 분석하는 사례별 제외 분석법(listwise deletion method)이 사용되었다. 분석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9.54세(최고 연령은 90세, 최소 연령은 52세, 최빈 연령은 72세)였다. 건강상태는 '건강하다'는 참여자가 54명(22.1%), '보통'이 124명(48.8%), '건강하지 않다'가 67명(26.4%)이었다. 남녀별 비율은 남성이 89명(36.3%), 여성이 156명(63.7%)이었으며, 평균 미국거주 기간은 18.35년, 자녀수는 평균 3명이고, 결혼한 경우 자녀가 없는 사람은 5명(2%) 뿐이었다. 1시간 이내의 거리에 1명 이상의 자녀가 살고 있는 경우가 150명(65.2%), 그렇지 않은 경우가 80명(34.8%)이었다. 배우자 상태는 '결혼한 배우자와 살고 있는 경우'가 135명(57%), '결혼한 배우자와 별거 중인 경우'가 14명(5.9%),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가 11명(4.6%), '배우자와 사별'이 75명(31.6%), '미혼'이 2명(0.8%)이었다. 평균 교육연수는 11.73년으로 높은 편이며, 한글해독 가능한 사람이 239명(98.4%),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도 91명(38%)이었다. 종교는 대부분 가지고 있었으며, 이중 210명(88%)이 기독교와 천주교였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70명(28.9%)이었고,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는 78명(32.2%)이었다. 경제상태는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03명(42.4%), '보통'이 118명(48.6%), '여유 있는 편'이 22명(8.7%)이었다. 연간 평균 가구소득은 15,666$,

www.kci.go.kr

한달 평균소득은 940$, 평균 용돈은 242$이었다.

측정도구

인구학적 변인

본 연구에서 애착과 관련되리라고 가정하고 측정한 인구학적 변인은 건강상태, 배우자 상태, 자녀수 및 경제상태였다. 건강상태는 '현재 건강상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보통이다, 건강하다, 매우 건강하다 중에서 선택하게 하였다. 배우자 상태는 결혼한 배우자와 살고 있음, 결혼한 배우자와 별거중, 배우자와 이혼, 배우자와 사별, 미혼 중에서 선택하게 하였다. 현재 배우자와 살고 있는 경우만을 배우자 있음으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배우자 없음으로 구분하였다. 자녀수에 대한 질문은 자녀의 수, 대중교통으로 한 시간 이내 거주 자녀수, 동거하고 있는 자녀수를 적게 하였다. 경제 상태는 4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우선 현재 경제 상태에 대해 매우 어렵다, 조금 어려운 편이다, 보통이다, 여유가 있는 편이다, 매우 여유가 있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두 번째로 미국 사회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과거 한국 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하였는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어느 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하층, 중하층, 중층, 중상층, 상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들 가운데 첫째와 둘째 문항의 경제 상태에 따라 애착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외에 연령, 성별, 교육정도 등을 기초변인으로 측정하였다.

심리적 욕구충족

안전 애착형성의 기본 요소로 La Guardia 등(2000)이 개발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에 대한 욕구 충족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미국대학에 유학 와서 박사학위를 받은 2인과 박사과정생 1인이 번안하여 번역의 충실성을 검토한 다음, 예비검사를 거쳐 한국 노인의 특성에 맞게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한 척도는 각 요인 당 3문항으로 자율성 욕구의 문항 예는 '나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유능감 욕구의 문항 예는 '내가 매우 능력 있고 쓸모 있다고 여긴다', 관계성 욕구의 문항 예는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낀다' 였다. 응답 자료를 요인 분석한 결과 예측했던 3요인이 개별요인으로 분류되지 않고 상호 섞여서 나오게 되어 La Guardia 등(2000)의 연구처럼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으로 구분할 수가 없었다. 이는 응답자들이 대부분 고연령인 관계로 정적방향으로 응답하는 경우와 부적방향으로 응답하는 경우 혼란이 생기고, 각 요인에 대한 답변에 일관성을 가질 수 없어서 생긴 결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항들을 단일차원의 기초적인 자기결정욕구라 이름 짓고 전체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부적인 방향으로 응답한 세 문항을 제외하고 남은 6문항의 신뢰도를 계산한 결과 .62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요인들만으로 심리적 욕구를 측정하였다. 측정에 포함된 문항은 1)나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2)내가 유능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3)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낀다, 4)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5)내가 매우 능력 있고 쓸모 있다고 느낀다, 6)우리가 매우 친밀하고 가깝다고 느낀다의 6문항이었다.

위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 외에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욕구에 대한 충족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이주일 등(2006)의 연구에 사용되었던 척도로 Maslow(1965)의 욕구 5단계에 따른 욕구충족도를 평가하도록 구성된 20문항으로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들 일상욕구충족 정도를 평가하는 20문항 전체의 신뢰도는 .86이었다.

통제감

노인들의 통제감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Wolinsky, Wyrwich, Babu, Kronke 및 Tierney (2003)의 연구에 소개된 Mirowsky와 Ross(1991)의 척도를 앞에서 설명한 욕구충족 척도와 같은 방식으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Rotter(1966)의 척도와 비슷하나, 책임소재를 받아들이는 것과 거부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되었다. 척도는 전체 8문항으로 책임소재를 묻는 요인과 운명론적 사고를 묻는 요인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는 '나의 성공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내게 생기는 나쁜 일들을 통제할 수가 없다' 등으로 이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찬성하는지를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중에서 선택하게 하였다. 8문항의 통제감 척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요인분석한 결과, 척도 내용보다도 응답방향에 따라 두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요인은 내적통제를 받아들이는 요

www.kci.go.kr

인으로 '내 성공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등 4문항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2였다. 둘째 요인은 외적통제를 받아들이는 요인으로 '내게 생긴 좋은 일은 대개 운 때문에 생긴 일이다' 등 4문항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60이었다. 요인분석에서 첫째 요인과 둘째 요인간 상관은 -.50으로 높은 편이었다.

애착성향

애착성향에 대한 측정은 Hazan과 Shaver(1993)가 제안한 애착 유형스타일을 측정하는 설명문을 번안하여 이주일(2004)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비교적 손쉽게 애착유형을 측정하는 것으로, 노인들에게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애착 유형의 측정은 우선 안정형, 회피형, 양가 감정형 불안 애착정도를 나타내는 설명문을 읽어주고,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중에서 선택하게 하였다. 그리고 세 유형에 대해 5점 척도에 표시한 다음 세 애착 유형 중에서 자신이 속하는 유형은 어디에 가까운지를 강제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응답자 246명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본인을 안전애착자로 분류한 사람은 196명(83.4%), 회피애착자로 분류한 사람은 23명(9.8%), 불안양가 애착자로 분류한 사람은 16명(6.8%)이었다. 5점 척도에서 안전애착 정도의 평균은 3.68(표준편차 1.02), 회피애착 정도의 평균은 2.05(표준편차 1.08), 불안애착 정도의 평균은 2.06(표준편차 1.18)이었다.

안전애착으로 자신을 분류한 비율이 많이 나와 분류자체가 신뢰로운 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유형별 애착점수를 비교하였다. 안정애착자로 분류한 사람들 196명의 안정애착점수 평균은 3.94, 회피애착점수 평균은 1.84, 불안애착점수 평균은 1.87이었고, 회피애착자로 분류한 사람들 23명의 안정애착점수 평균은 2.74, 회피애착점수 평균은 3.26, 불안애착점수 평균은 2.78이었고, 불안애착자로 분류한 사람들 16명의 안정애착점수 평균은 2.63, 회피애착점수 평균은 2.31, 불안애착점수 평균은 3.25로 나타나 애착유형 분류가 신뢰롭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문단으로 애착성향을 측정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Greenberg(1982), Greenberg, Siegel 및 Leitch (1983)가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안전애착 척도를 앞에서 설명한 욕구척도와 같은 방식으로 번안하여 노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컨대, 원 문항은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안전애착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모를 가족으로 바꾸어 제시하고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문항의 예는 '기본적으로 가족들을 신뢰하지만, 가끔 이런 신뢰에 의심이 갈 때가 있다', '가끔 내 친구들이 다른 사람이었으면 한다'로 가족에 대한 4문항, 친구에 대한 4문항으로 된 척도로 이루어졌는데 8문항 가운데 6문항이 안전애착에 반대되는 문항이었고, 두 문항은 안전애착에 긍정적인 문항이었다. 문항의 응답 방향이 대부분 같은 관계로 욕구나 통제감 측정에서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67이었다. 이 척도는 여러 연구에서 안전애착 정도를 신뢰롭게 측정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a Guardia, Ryan, Couchman, & Deci, 2000).

애착성향을 측정하는 두 척도간의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두 척도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척도로 만들어진 안전애착 척도와 한 문단으로 측정된 안전애착 간의 상관은 .194(p<.01), 회피애착과의 상관은 -.291(p<.001), 불안애착과의 상관은 -.391(p<.001) 이었다. 두 척도간의 상관이 기대보다 높지 않은 것은 척도 유형의 차이와 응답자의 고연령 때문이라 생각된다. 특히 안전애착간의 상관이 높지 않은 것은 문단형으로 측정한 설문은 불특정 타인에 대한 안전애착을 측정하는 내용인데 비해, 척도형으로 된 애착설문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 대한 안전애착을 측정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문단형으로 측정된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은 배우자나 친구에 대한 회피와 불안을 측정하는 내용이었다. 이로 인해 척도로 측정한 안전애착과 문단형 회피애착 및 불안애착간 상관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안녕감

애착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욕구충족과 통제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안녕감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안녕감을 잘 측정해주는 것으로 알려진 PGCMS(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Lawton, 1975; Liang & Bollen, 1983)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이주일 등(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로

www.kci.go.kr

나이든 성인들의 안녕감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척도로 편안함, 노화에 대한 만족, 인생에 대한 만족의 세 요인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18문항의 척도이지만, 안녕감이라는 단일 요인 척도로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86이었다.

측정절차

자료 수집은 집단 설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뉴욕시의 한인 사회복지단체인 뉴욕한인 봉사센터가 운영하는 두 곳의 경로회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 두 곳의 경로회관은 뉴욕시 노인국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뉴욕시에 거주하는 한인노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일 서비스 이용자는 약 500명에 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한인 노인들에게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자를 추출한 다음, 이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본 연구원들 의해 설문 조사 교육을 받은 면접원들에 의해 집단 면접의 형태로 10명단위로 진행되었다. 한글해독이 떨어지거나 글을 읽을 수 없는 조사대상자의 경우, 또는 고령으로 귀가 어두워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단면접 후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와 개별적으로 일대일 면접을 시행하여 설문조사를 완성하였다.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였다.

결 과

연구변인들과 애착 변인들 간의 관계

성인의 애착형성과 관련 있는 인구학적 변인들을 찾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측정한 기초적인 인구학적 변인들과 애착 유형들 간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애착의 측정은 두 가지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첫 번째 척도에서는 Hazan과 Shaver(1993)의 연구에서처럼 애착을 세 유형으로 구분하는 설명문으로 측정하였고, 두 번째 척도에서는 안전애착만을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구학적 변인으로 포함된 변인들 중 연령, 성별, 교육연수, 배우자 유무, 1시간 내 거주 자녀 유무는 객관적인 측정 지표들이었다. 설명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측정된 안전애착과 회피애착은 측정된 객관적인 인구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는 경우가 없었으나, 불안애착은 배우자 유무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r=-.195, p<.05). 척도로 측정한 안전애착은 연령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r=.206, p<.01), 교육정도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r=-.159, p<.05)을 나타냈다.

인구학적 변인들 중 건강상태, 자녀관계 만족, 현재 경제상태, 미국 내에서의 현 소속 계층 등은 주관적인 측정 지표들이었다. 이 항목들도 설명문에 대한 평가로 측정된 안전애착, 회피애착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질 않았지만, 불안애착은 건강상태(r=-.169, p<.01), 자녀관계 만족(r=-.183, p<.01), 현재 경제상태(r=-.26, p<.001), 소속계층(r=-.117, p<.10)과 모두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여주었고, 소속계층과도 부적인 상관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척도로 측정된 안전애착은 자기평가 자녀만족(r=.242, p<.001), 현재 경제상태(r=.22, p<.001), 소속계층(r=.166, p<.05)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자 한 애착과 욕구충족, 애착과 통제감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설명문에 대한 평가로 측정한 안전애착은 기본욕구 충족(r=.207, p<.01), 일상욕구 충족(r=.22, p<.01)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여주었고, 회피애착은 일상욕구충족과 유의미한 부적상관(r=-.209, p<.01)을 보여주었으며 불안애착도 일상욕구충족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r=-.238, p<.01)을 보여주었다. 척도로 측정한 안전애착도 기본욕구 충족(r=.181, p<.01)과 일상욕구 충족(r=.311, p<.001)과의 관계에서 모두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여주었다.

애착과 통제감 간의 관계는 내적통제는 측정된 애착척도들 가운데 어느 것과도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지 않은 반면, 외적통제는 진술문으로 측정한 회피애착(r=.167, p<.05), 불안애착(r=.259, p<.001)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여주었으며 척도로 측정한 안전애착과는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r=-.19, p<.05)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애착과 안녕감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안전애착과는 두 가지 모두 정적 상관(r=.164, p<.05; r=.509, p<.001)을 회피애착, 불안 애착과는 부적 상관(r=-.24, p<.001; r=-.492, p<.001)을 보여주었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애착정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다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비교적 상관관계가

www.kci.go.kr

표 1. 변인들간의 상관 및 평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1																	
2	-.07	1																
3	-.27 (***)	-.35 (***)	1															
4	-.16 (*)	-.31 (***)	.30 (***)	1														
5	.08	.01	-.02	.07	1													
6	.01	-.14 (*)	.18 (**)	.07	.07	1												
7	.09	-.00	-.15 (*)	.09	.08	.17 (**)	1											
8	.08	-.02	.10	.24 (***)	.11	.23 (***)	.26 (***)	1										
9	-.02	.05	.15 (*)	.09	.08	.17 (**)	.19 (**)	.48 (***)	1									
10	-.04	-.07	.18 (**)	.09	.09	.09	.16 (*)	.14 (*)	.22 (**)	1								
11	.15 (*)	-.11	-.02	.30 (***)	.21 (**)	.20 (**)	.43 (***)	.48 (***)	.26 (***)	.37 (***)	1							
12	-.02	-.14 (*)	.05	-.06	-.00	.13	.06	.06	.04	.29 (***)	.23 (***)	1						
13	.13 (*)	.01	-.14 (*)	-.13 (*)	-.07	-.01	-.02	-.18 (**)	-.08	.16 (*)	-.18 (*)	.14 (*)	1					
14	.10	-.06	.03	.31 (***)	.18 (*)	.19 (**)	.31 (***)	.45 (**)	.26 (***)	.15 (*)	.51 (***)	.13	-.32 (***)	1				
15	.07	.06	-.07	.07	.07	-.00	.08	.03	.03	.21 (**)	.22 (**)	.02	.03	.16 (*)	1			
16	-.02	-.06	.08	-.10	-.02	.06	-.01	-.06	-.03	-.11	-.21 (**)	.04	.17 (*)	-.24 (**)	-.21 (**)	1		
17	-.02	.12	-.11	-.20 (**)	-.09	-.17 (**)	-.18 (**)	-.26 (***)	-.12	-.08	-.24 (***)	.00	.26 (***)	-.49 (***)	-.16 (*)	.43 (***)	1	
18	.21 (**)	.06	-.16 (*)	.13	.13	.07	.24 (**)	.22 (**)	.17 (*)	.18 (**)	.31 (***)	.10	-.19 (**)	.51 (***)	.19 (**)	-.29 (***)	-.39 (***)	1
M	69.54	1.64	11.73	.57	.65	2.91	3.69	2.53	2.07	3.16	3.30	3.45	2.51	3.31	3.68	2.05	2.06	3.85
SD	5.93	.48	4.10	.50	.48	.91	.95	.91	.86	.66	.59	.88	.80	.66	1.03	1.08	1.18	.60

주 1. 연령(만), 2. 성별(1=남, 2=녀), 3. 교육연한, 4. 배우자유무(0=무, 1=유), 5. 1시간내 거주 자녀유무(0=무, 1=유), 6. 건강상태, 7. 자녀관계만족, 8. 현재경제상태, 9. 소속계층, 10. 기본욕구충족, 11. 일상욕구충족, 12. 내적통제소재, 13.외적통제소재, 14.안녕감, 15. 안전애착(문단형), 16회피애착, 17. 불안애착, 18안전 애착(척도형)

주 2. $^{*}p<.05$, $^{**}p<.01$, $^{***}p<.001$

일관되게 유의미하게 나온 자기평가 건강상태, 경제상태, 자녀만족정도에 따라 애착점수에서 차이가 생기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자와의 관계에 따라서도 애착점수에 차이가 생기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자기평가 건강상태에 따라 애착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건강상태에 대한 다섯 유형간 차이가 유의미한 경우는 불안애착의 경우에서만 나타났다(F=2.60, p<.05). 그러나 사후 검증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경우는 건강하지 못함과 건강집단 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p<.05)가 발생하여, 건강하지 못함 집단이 건강집단에 비해 불안애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평가 경제 상태에 따라 애착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www.kci.go.kr

표 2. 자기평가 건강상태에 따른 애착의 차이

	자기평가 건강상태					*F*
	매우 건강 못함	건강못함	보통	건강	매우건강	
N	19	47	124	45	9	
안전애착1	3.68	3.85	3.59	3.84	3.67	.87
회피애착	1.74	2.04	2.11	1.93	2.44	.93
불안애착	2.21^{ab}	2.47^{a}	1.96^{ab}	1.77^{b}	1.78^{ab}	**2.60***
안전애착2	3.93	3.78	3.80	3.98	3.991	.96

주 1. ^{+}p<.10, $^{*}p$<.05, $^{**}p$<.01, $^{***}p$<.001 (이하 동일)
주 2. '안전애착1'은 문단형측정, '안전애착2'는 척도형 측정(이하 동일)
주 3. ab는 사후검증 동일집단(이하 동일)

표 3. 자기평가 경제상태에 따른 애착의 차이

	자기평가 경제상태					*F*
	매우어렵다	좀 어려운 편	보통	여유 있는편	매우여유	
N	37	66	118	17	5	
안전애착1	3.81	3.56	3.69	4.00	3.80	.83
회피애착	2.32	1.77	2.10	1.88	1.60	2.18
불안애착	2.81^{a}	2.02^{ab}	1.81^{ab}	1.88^{ab}	1.60^{b}	**6.01*****
안전애착2	3.45^{a}	3.88^{ab}	3.96^{ab}	3.71^{ab}	4.25^{b}	**5.76*****

주. ab는 사후검증 동일집단(이하 동일)

서는 불안애착과 척도로 측정한 안전애착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6.01, p<.001; F=5.76, p<.001). 경제상태가 매우 어려운 집단이 매우 여유있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불안애착 수준이 높았고, 안전애착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관계 만족도에 따라 애착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문단형 척도로 된 안전애착, 불안애착, 척도형으로 측정된 안전애착에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3.23, p<.01; F=3.67, p<.01; F=3.36, p<.05). 특이하게 자녀관계에 매우 불만족하다는 집단의 안전애착이 높았다. 그리고 자녀관계에 대체로 불만족한 집단보다 매우 만족집단의 안전애착점수가 더 높았다. 불안애착은 불안애착에서는 '대체로 만족'과 '그저 그럼'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그리고 자녀관계 만족도에서 매우 만족한 집단이 매우 불만족한 집단보다 척도형으로 측정한 안전애착정도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표 4. 자녀관계 만족도에 따른 애착의 차이

	자녀관계 만족도					*F*
	매우불만족	대체불만족	그저그럼	대체만족	매우만족	
N	9	8	73	96	44	
안전애착1	4.22^{b}	2.88^{a}	3.64^{ab}	3.65^{ab}	4.00^{b}	**3.23****
회피애착	1.89	2.25	2.08	1.84	2.12	.990
불안애착	2.33	2.13	2.35	1.75	1.84	**3.67****
안전애착2	3.53^{a}	3.47^{ab}	3.73^{ab}	3.91^{ab}	4.04^{b}	**3.36***

www.kci.go.kr

표 5. 배우자 관계 유형에 따른 애착의 차이

	배우자 관계				*F*
	결혼배우자와 동거	결혼배우자와 별거	배우자와 이혼	배우자와 사별	
N	135	14	11	75	
안전애착1	3.76	3.57	3.45	3.65	.51
회피애착	1.94	1.86	1.91	2.19	1.06
불안애착	1.81^{a}	2.36^{b}	2.00^{ab}	2.28^{b}	3.28^{*}
안전애착2	3.91	3.61	3.51	3.83	2.31

배우자 관계유형에 따라 애착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불안애착 정도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F=3.28, p<.05),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 느끼는 불안애착이 결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1시간 내 거주 자녀수, 손자녀 양육경험, 거주 주택유형, 영어소통 유무에 따라 애착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추가로 분석하였는데 이들 간에는 애착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욕구충족과 통제감이 애착형성에 미치는 영향

인구학적 변인들이 애착을 설명하는 변량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욕구충족이나 통제감이 애착을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크게 2유형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연령, 성별, 교육정도, 배우자 유무, 1시간내 자녀 유무와 같은 객관적인 인구학적 변인들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런 영향들을 통제한 이후에 욕구충족과 통제감이 애착을 설명하는 변량의 증가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 객관적인 인구학적 변인들 외에 주관적인 인구학적 변인들을 추가하여, 객관적 및 주관적 인구학적 변인들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욕구충족과 통제감이 애착을 설명하는 변량이 의미있는 변량인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의 분석에서 객관적인 인구학적 변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욕구충족과 통제감이 애착을 설명하는 변량에 유의미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단형 안전애착에 대해서는 욕구충족과 통제감이 10.8%(p<.01)의 유의미한 설명량 증가를 가져왔고, 회피애착에 대해서는 6.3%(p<0.5)의 유의미한 설명량 증가를 가져왔으며, 척도형 안전애착에 대해서는 9.5%(p<.01)의 유의미한 설명량 증가를 가져왔다. 불안애착에 대해서도 5.3%의 설명량 증가를 가져왔으나 이 수치는 유의미하지는 않았다(표 6).

크게 두 번째 유형으로 시행한 회귀분석은 객관적인 인구학적 변인들(1단계), 주관적 인구학적 변인(2단계)을 통제한 후에도 욕구충족 및 통제감(3단계)이 애착을 설명하는 변량이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이었다. 모형 1은 앞의 첫 번째 유형으로 시행한 회귀분석에서와 같이 기본적인 인구학적 변인들로 연령, 성별, 교육정도, 1시간 내 거주 자녀유무가 애착을 설명하는 정도를 분석하였고, 모형 2는 모형 1의 변수들에 인구학적 변인 중에

표 6. 객관적 인구학적 변인 통제시 욕구충족과 통제감의 애착 설명량 변화량

	예측변인의 설명량			R^2 변화량 F
	1단계모형 R^2	2단계 모형 R^2	R^2 변화량	
안전애착1	.054	$.162^{***}$	**.108****	.003
회피애착	.050	$.118^{+}$	**.063***	.052
불안애착	.067	$.119^{+}$	.053	.114
안전애착2	$.142^{***}$	$.237^{**}$	**.095***	.005

주 1단계 모형 : 연령, 성별, 교육정도, 배우자 유무, 1시간내 자녀 유무의 애착 설명량,
2단계 모형 : 1단계 모형에 욕구충족과 통제감을 추가하였을 경우 애착 설명량

www.kci.go.kr

표 7. 안전애착(문단측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단계적 회귀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연령	-.05	-.50	-.05	-.54	-.05	-.52
성별	.14	1.33	.13	1.31	.18	1.81^{+}
교육정도	-.11	-1.09	-.05	-.48	-.03	-.34
배우자유무	.06	.64	.01	.08	-.07	-.69
1시간내 자녀 유무	.13	1.42	.15	1.65	.12	1.41
건강상태			-.16	1.71	-.19	-2.12*
자녀관계			.23	2.42*	.14	1.48
현재경제상태			-.11	-1.12	-.18	-1.87^{+}
미국소속계층			.05	.53	-.05	-.57
기본욕구충족					.26	2.64**
일상욕구충족					.26	2.24*
내적통제					-.10	-1.17
외적통제					-.10	-1.07
R^2	**.06**		**.13**		**.26**	
F	1.54		1.93*		3.06**	
R^2 *변화량*			.07		.13	
F			2.33^{+}		5.02**	

서 애착과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자기평가 건강상태, 자기평가 경제상태, 자기평가 미국 내 소속 계층, 자기평가 자녀와의 만족의 네 가지 주관적인 인구학적 변인들이 애착을 설명하는 변량을 회귀분석에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서는 모형 2에 욕구충족과 통제감 변인을 추가할 경우에 애착을 설명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식에 욕구충족과 통제감을 추가하여 회귀 설명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 8. 회피애착(문단측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연령	-.17	-1.68^{+}	-.18^{+}	-1.80	-.19	-1.83^{+}
성별	-.14	-1.39	-.11	-1.09	-.11	-1.04
교육정도	.05	.49	.08	.69	.08	.76
배우자유무	-.16	-1.61	-.16	-1.52	-.14	-1.26
1시간내 자녀 유무	-.04	-.40	-.03	-.37	-.02	-.26
건강상태			.03	.31	.02	.24
자녀관계			.00	.04	.02	.19
현재경제상태			-.01	-.06	-.00	-.01
미국소속계층			-.18	-1.89^{+}	-.14	-1.41
기본욕구충족					-.12	-1.12
일상욕구충족					.00	.00
내적통제					.11	1.18
외적통제					.08	.74
R^2	**.05**		**.09**		**.11**	
F	1.38		1.21		1.04	
R^2 *변화량*			.03		.02	
F			1.01		.67	

www.kci.go.kr

첫 번째로 설명문 제시를 통해 측정한 안전애착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앞서 설명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결과 모형 1의 설명량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모형 2와 모형 3의 설명량은 각기 13%, 26%로 유의하게 안전애착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욕구충족과 통제요인을 추가한 모형 3의 설명량 증가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욕구충족과 통제감은 객관적인 인구학적 변인들과 주관적인 인구학적 변인들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안전애착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R^2 변화량=.13, p<.01). 모형3에서 기본욕구충족, 일상욕구충족 변인은 안전애착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고(β=.264 p<.01; β=.255, p<.05), 자기평가 건강상태도 안전애착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해주었다(β=-.189, p<.05)(표 7).

두 번째로 설명문 제시를 통해 측정한 회피애착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회귀분석에서는 모형 1, 2, 3 중 어느 모형도 회피애착을 유의하게 설명해주지 못하였고, 회귀 변화량도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8).

세 번째로 설명문 제시를 통해 측정한 불안애착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결과 모형 1과 2의 설명량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욕구충족과 통제감이 포함된 모형 3의 설명량은 17%로 유의하게 불안애착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그러나 욕구충족과 통제감을 추가한 모형 3의 설명량 증가는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3에서 외적통제는 유일하게 불안애착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198 p<.05)(표 9).

마지막으로 척도로 측정한 안전애착을 종속변인으로 삼아 앞서 설명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형 1, 2, 3은 모두 유의미하여, 모형 1의 설명량은 14%, 모형 2의 설명량은 26%, 모형 3은 31%로 모두 유의미 하였다. 그러나 모형 2에서 자기평가 인구학적 변인들은 모형의 설명량을 유의하게 증가시켜주었으나, 모형 3에서 욕구충족과 통제감이 추가될 경우의 설명량 증가는 4%였지만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외적통제감은 모형 3에서 안전애착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β=-.183, p<.05), 그 외에도 연령과 자녀관계가 애착을 각각 유의하게 설명해주었다(β=.286, p<.01; β=.249, p<.01)(표 10).

욕구충족과 통제감의 조절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 조절효과 분석은 애착유형에 따라 욕구충

표 9. 불안애착(문단측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연령	-.22	-2.18	-.19	-2.04	-.18	-1.87^{+}
성별	.06	.57	.04	.43	.03	.25
교육정도	-.03	-.25	-.01	-.07	.00	.02
배우자유무	-.16	-1.57	-.15	-1.44	-.11	-1.11
1시간내 자녀 유무	-.08	-.85	-.05	-.52	-.03	-.30
건강상태			-.09	-.94	-.07	-.75
자녀관계			-.17	-1.71	-.16	-1.56
현재경제상태			-.08	-.76	-.01	-.14
미국소속계층			-.04	-.46	-.01	-.14
기본욕구충족					-.03	-.25
일상욕구충족					-.08	-.63
내적통제					-.02	-.21
외적통제					**.19**	2.04*
R^2	**.07**		**.13**		**.17**	
F	1.69		1.94^{+}		1.82*	
R^2 변화량			.07		.04	
F			2.17^{+}		1.47	

www.kci.go.kr

표 10. 안전애착(척도측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단계적 회귀분석

	모형1		모형2		모형3	
	β	t	β	t	β	t
연령	.31	3.18**	.30	3.24**	.29	3.09**
성별	-.02	-.17	.01	.09	.03	.27
교육정도	-.11	-1.07*	-.12	-1.17	-.13	-1.27
배우자유무	.23	2.36**	.22	2.31*	.18	1.87+
1시간내 자녀 유무	.10	1.12	.06	.73	.05	.62
건강상태			.11	1.20	.09	.95
자녀관계			.27	3.01**	.25	2.67**
현재경제상태			-.05	-.50	-.10	-1.05
미국소속계층			.13	1.52	.09	.96
기본욕구충족					.10	1.06
일상욕구충족					.07	.61
내적통제					.04	.44
외적통제					-.18	-2.01*
R^2	**.14**		**.26**		**.31**	
F	3.89***		4.48***		3.70***	
R^2 변화량			.12		.04	
F			4.61**		1.71	

족과 통제감의 조절효과가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Hazan과 Shaver(1993)가 측정한 방식대로 세 가지 유형의 애착 설명문을 제시하고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애착양식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과 세 유형의 애착설명문 각각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척도에 응답하게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애착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애착변인은 범주변인과 연속변인 두 가지로 측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의 조절효과 분석은 예측변인은 범주변인이고 조절변인은 연속 변인인 경우와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이 모두 연속 변인에 해당하는 경우로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세 번째 사례와 네 번째 사례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Baron과 Kenny(1986)는 이와 같이 예측변인의 범주에 따라 예측변인이 결과변인에 영향을 주는 강도나 질에 조절변인이 변화를 줄 것이 예상될 경우 조절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먼저 애착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이 모두 연속 변인인 경우의 분석을 하였다. 분석은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변인과 조절변인 간 상호작용의 유의미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안전애착과 일상욕구 상호작용(β=.474, p<.001), 안전애착과 외적통제 상호작용(β=-.416, p<001), 회피애착과 외적통제 상호작용(β=.527, p<.001), 불안애착과 일상욕구 상호작용(β=.424, p<.01), 불안애착과 외적 통제 상호작용(β=-.541, p<.001)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애착과 일상욕구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의미있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표 11).

표 11. 안녕감에 대한 애착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애착*조절변인[1]	안전애착	회피애착	불안애착
애착*기본욕구	.067	-.208	-.246
애착*일상욕구	.474***	.459+	.424**
애착*내적통제	.088	-.057	-.087
애착*외적통제	-.416***	.527***	-.541***

주. [1]애착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 값
표안의 수치는 상호작용이 안녕감을 설명하는 값으로 β값을 나타냄.

조절변인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각 애착집단을 욕구충족과 통제감에 따라 상하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이들 척도에 따라 형성된 상하집단의 안녕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상, 하 집단의 구분은 편의적으로 각 척도의 평균점수를 구한 다음 평균보다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는 방식

www.kci.go.kr

표 12. 욕구충족 및 통제감 상하구별에 따른 안전애착 집단의 안녕감 평균(표준편차)의 차이비교

	집단구분		t
	상	하	
기본욕구 욕구충족	3.48(.64)	3.24(.72)	-2.04*
일상욕구충족	3.62(.56)	3.11(.61)	-4.91***
내적통제	3.43(.64)	3.24(.69)	-1.73+
외적통제	3.20(.71)	3.50(.57)	2.83**

표 13. 욕구충족 및 통제감 상하구별에 따른 비안정(회피, 불안) 애착집단의 안녕감 평균(표준편차)의 차이비교

	집단구분		t
	상	하	
기본욕구 욕구충족	3.08(.65)	2.86(.54)	-.94
일상욕구충족	3.19(.66)	2.64(.49)	-2.19*
내적통제	3.00(.73)	2.91(.44)	-.41
외적통제	2.79(.72)	3.12(.45)	1.59

을 택하였다. 먼저 자신을 안전애착을 하는 사람이라고 구분한 집단에 대해 기본욕구충족, 일상욕구충족, 내적통제 및 외적통제 수준을 상하로 구분한 다음, 이 두 집단들의 안녕감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기본욕구충족, 일상욕구충족, 외적 통제 상하 집단 간에 안녕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각각 나타났다(t=-2.04, p<.05; t=-4.91, p<.001; t=2.83, p<.01). 즉 안전애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기본욕구 충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안녕감이 유의하게 더 높았고, 일상욕구 충족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안녕감이 높았다. 또한 외적 통제감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안녕감이 유의하게 낮았다. 내적 통제의 경우에도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내적 통제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안녕감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표 12).

마지막으로 자신을 회피애착 또는 불안애착으로 구분한 사람들의 경우 욕구충족과 통제감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회피 애착자와 불안애착자로 각기 나누기에는 두 집단의 표본수가 너무 적어 두 집단을 합하여 비안전 애착집단으로 간주한 다음 앞에서와 같이 욕구충족과 통제감 상하에 따라 안녕감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본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안전 애착집단의 경우에도 일상욕구충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안녕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t=-2.19, p<.05). 즉 비안전 애착자들의 경우에도 일상욕구충족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안녕감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기본욕구충족, 내적통제, 외적통제에서 상하 집단은 안녕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3).

논 의

개인의 애착기제는 장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으로 한번 형성된 애착모델은 개인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노인기의 개인 특성은 많은 부분이 유아기적 특성을 닮아간다고 한다. 특히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없게 되고, 자식에게 의존하게 될수록 개인의 삶의 조건은 유아기 시절과 비슷해진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던 만성적인 질환에 시달리는 노인들의 심리적 특성이 유아기적 특성과 유사하다는 연구결과(Miesen, 1998)가 이를 반증해준다. 노인의 애착이 아동기에 형성된 애착과 일관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간의 이견이 많으며 아직 좀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인생후기 성인의 애착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탐색해보고, 이 중에서도 욕구충족과 통제감 형성이 인생후기 성인의 애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구충족 및 통제감 형성이 애착형성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애착과 인구학적 변인간의 관계

먼저 애착형성에 영향을 주는 인구학적 조건을 살펴본 결과, 성별, 자녀의 1시간 이내 거리 거주 유무,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정도와 같은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보다 개인이 평가하는 현재 경제 상태에 대한 지각, 자녀관계 지각, 건강상태지각, 소속 계층지각과 같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삶의 조건들이 애착을 더 많이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평가에 의한 주관적인 인구학적 변인들은 객관적인 인구학적 변인들을 통제하고도 척도로 측정한 안전애착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문으로 측정한 안전애착과 불안애착도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설명량을 증가시켜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개인이 자신의

www.kci.go.kr

삶의 조건들을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삶의 조건들 자체보다 개인이 안정적인 애착형성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지각하느냐의 유무, 자녀관계의 속성에 대한 지각 정도, 현재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한 지각, 자신이 속한 계층이 사회적 통념상 상중하 가운데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지각 여부가 안정적이거나 불안한 애착형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객관적인 인구학적 변인 중에서 특이하게도 연령은 안전애착과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고, 불안애착 및 회피애착과는 부적으로 관련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통념적인 생각과는 배치되는 결과였다. 즉 나이가 들어갈수록 애착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통념과는 반대되는 결과였는데, 이는 본 연구 참여자들이 미국거주 한인들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즉 나이가 많은 경우 미국에 거주하여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기간이 더 길었기 때문에 미국에 정착한 기간이 적은 경우보다 더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정도도 안정애착과 부적 관계를 보여주었는데, 이 경우도 교육연한이 많은 사람일수록 미국 정착기간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 진다. 이런 결과는 또한 이론적으로 보면 노인의 정서적 선택적 최적화의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Carstensen, Issacowitz, & Charles, 1999). 즉,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덜 인식하려는 자기보호적 경향의 발생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

한편 배우자 유무는 안전애착과는 정적관계, 불안애착과는 부적관계를 나타내 애착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었는데, 이 결과는 성인 후기 애착형성에서 배우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성인이 형성하는 주요 애착망에 대한 분석에서 배우자나 이성상대를 주요애착대상으로 분류한 비율이 74%였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수치가 더 올라가 77%를 차지한 것에서 보듯이(Doherty & Feeny, 2004), 성인에게 있어 배우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결과는 노인이 될수록 배우자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의 표본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더욱이 서로 더 많이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타국에서 배우자끼리 살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생긴 결과일 수도 있어 국내 상황과 비교하여 새로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1시간 내에 거리에 거주하는 자녀의 수나 자녀 유무, 자녀 수 등은 애착형성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 결과를 함께 보면 자식들과의 관계보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성인 후기의 애착형성에 더 중요하다는 결과를 시사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이 결과 또한 국내 상황보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는 미국사회에 살고 있다는 조건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다.

욕구충족 및 통제감과 애착간의 관계

욕구충족 및 통제감과 애착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기본적인 욕구 충족, 일상적인 욕구 충족, 외적 통제가 성인후기의 애착형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상관분석결과는 내적 통제를 제외하고 기본적 욕구충족, 일상적 욕구충족 및 외적통제 모두 애착변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객관적인 인구학적 변인들을 통제하고도 욕구충족과 통제감이 애착을 설명하는 양이 유의미한지를 분석한 결과, 불안애착을 제외하고 두 가지 안전애착 모두와 회피애착에 대해 욕구충족과 통제감의 고유 설명량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객관적인 인구학적 변인들과 주관적인 인구학적 변인들을 모두 통제한 경우에도 욕구충족과 통제감은 문단형 안전애착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었으며, 불안애착의 경우도 욕구충족과 통제감 변인이 포함된 모형 3이 유의하였다. 이 결과들은 성인후기의 애착형성에 기본적 욕구와 일상적으로 개인들이 가지는 욕구들의 충족 및 통제감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척도로 측정한 안전애착에 대해서는 외적통제가, 설명문으로 측정한 안전애착에 대해서는 기본욕구 충족과 일상욕구 충족이, 그리고 불안애착에 대해서는 외적통제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변인들이 안전애착과 불안애착 형성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만 회피애착에 대해서는 인구학적 변인과 욕구충족 및 통제감을 포함시킨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들 가운데 어느 것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인구학적 변인이나 욕구 및 통제감이 회피애착을 설명

www.kci.go.kr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단순상관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는 일상욕구 충족은 회피애착과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고, 외적 통제감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어 욕구충족과 통제감이 회피애착 형성과 아주 관련이 없지는 않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객관적인 인구학적 변인만을 통제변인으로 하고 욕구충족과 통제감을 추가하였을 때 이 변인들의 회피애착에 대한 설명량 증가가 유의미한 것으로 보아 욕구충족과 통제감이 회피애착을 유의미하게 설명해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욕구충족과 애착간의 관계는 두 개념간에 관계성차원이 중복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Ryan과 Deci(2000)가 기본욕구로 제시한 자율/유능/관계욕구 충족은 안전애착의 구성내용과 비슷하지만 측정하는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구성개념이 완전히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두 구성개념간의 상관이 그리 높지 않은 것(r=.21, .18)은 두 개념이 중복성은 있지만 구별되는 구성개념이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것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측정한 Ryan과 Deci(2000)가 제안한 기본욕구는 안전애착을 이루는 속성의 일부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LaGuardia 등(2000)이 분석한 것처럼 욕구척도에서 관계성요인을 제외할 경우에도 애착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관계성요인을 제외할 경우 기본욕구충족은 문단형 안전애착과는 r=.093, 회피애착과는 r=.032, 불안애착과는 r=.116, 척도로 측정한 안전애착과는 r=.000로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상욕구에서 관계성요인을 제외하고 상관분석을 하였는데 이 경우에 일상 욕구 충족은 문단형 안전애착과는 r=.215 (p<.01), 회피애착과는 r=-.122 (p=.084), 불안애착과는 r=-.197 (p<.01), 척도로 측정한 안전애착과는 r=.273 (p<.001)로 나타나 대부분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LaGuardia 등(2000)의 연구에서도 관계성을 제외한 경우 유능성과 자율성 욕구 충족과 안전애착간의 관련성의 강도는 좀 낮아졌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에서 반 이상의 관계 쌍에서 두 개념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유지했었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문단으로 측정한 경우에는 모든 경우 관련성이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는 두 연구의 표본에서 생긴 차이가 한 역할을 한 것일 수도 있다. 즉, 노인들이 대부분인 본 연구에서는 기본욕구에서 관계성 욕구가 빠지게 되자 애착과의 관련성이 없어지게 된 결과일 수도 있다. 또한 노인들의 경우 관계성에 대한 욕구 충족이 자율성과 유능성에 대한 욕구 충족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타난 경우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또 다른 연구에서 좀 더 깊이 분석해보아야 할 주제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Maslow의 가정에 의거하여 측정한 일상욕구 측정은 관계성을 제외하고도 애착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이러한 일상적인 욕구충족과 애착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이라는 것을 함의한다고 하겠다.

한편 본 연구가 Wei 등(2005) 및 LaGuardia(2000) 등의 연구와 가지는 차별성은 우선 연구 표본의 차이이다. 기존 연구의 표본은 평균 19세, 20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였는데 비해 본 연구의 표본은 평균연령이 70세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척도를 사용하기가 어려웠고, 측정을 엄밀하게 할 수 없었다는 한계점과 척도들의 신뢰도가 낮았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성인후기 연령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욕구충족과 애착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애착과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욕구충족과 통제감의 조절변인으로서의 역할

마지막으로 애착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욕구충족과 통제감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Wei 등(2005)은 자기결정에 대한 기초적인 욕구의 충족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불안애착이나 회피애착이 욕구충족을 가져오고 이런 욕구충족이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켜준다는 가정은 논리적으로 상식과 어긋나는 면이 있다. 즉, 불안애착이나 회피애착의 증가가 욕구충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기보다, 욕구충족이 불안애착이나 회피애착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이다. 또한 주위사람에 대해 불안 또는 회피 애착형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중간에서 욕구충족이나 통제감이 조절변인으로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개인이 체험하는 안녕감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다 자연스럽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가정 하에 욕구충족과 통제감이 조

www.kci.go.kr

절변인으로 기능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연속척도로 측정한 애착과 욕구충족 및 통제감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서 안전애착, 회피애착, 불안애착 모두 일상욕구와의 상호작용과 외적통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본욕구와 내적통제가 애착과 보이는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일상적인 욕구충족과 애착이 상호작용하여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외적통제소재와 애착이 상호작용하여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욕구충족과 통제감이 어떻게 조절변인 역할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연구 집단을 개인의 애착유형에 따라 안전애착집단과 비안전애착집단으로 구분하고 욕구충족과 통제감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들에게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애착 유형을 선택하게 하였는데, 본인을 '안전애착 유형'으로 선택한 사람이 대부분으로 나타나(196명, 83%), 회피애착 유형으로 선택한 사람(23명, 9.8%)과 불안애착 유형으로 선택한 사람(16명, 6.8%)을 합하여 '비안전 애착 유형'으로 선택한 사람으로 구분한 다음, 안전과 비안전 애착집단별로 욕구충족과 통제감의 차이에 따라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안정애착자들의 경우 기본욕구충족, 일상욕구 충족이 많을수록 안녕감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외적 통제감이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에 안녕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내적 통제감이 높은 경우에도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내적 통제감이 낮은 사람보다는 안녕감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비안전 애착집단의 경우도 일상욕구충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욕구충족과 내적 통제감의 경우도 上의 집단이 下의 집단보다 안녕감이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고, 외적통제감이 낮은 집단도 높은 집단에 비해 안녕감이 높게 나왔으나 이 경우도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비안전 애착자의 경우 해당자가 너무 적어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 분석 결과는 애착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욕구충족과 통제력이 조절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이는 불안애착이나 회피애착자라 하더라도 일상적 욕구충족이 이루어지거나 외적 통제감을 덜 느끼게 된다면 안녕감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생애후기 성인들의 경우에 개인이 바라는 자아실현, 자존감, 소속감, 생리적인 차원의 욕구 등의 충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신의 삶이 외적으로 통제된다는 느낌을 덜 갖도록 만들어주면 비안전 애착자라도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전 애착자들의 경우에도 심리적 욕구충족과 외적 통제감에 대한 느낌을 덜어 줌으로써 안녕감 제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과 향후에 추가적으로 연구해야할 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첫째, 본 연구가 생애 후기에 접어든 성인의 애착에 대한 연구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애착 연구가 아동기나 성인초기에 국한된데 비해 본 연구는 50대 이후의 성인들의 애착에 대해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의의는 애착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인구학적인 변인들 외에도 욕구충족과 통제감이 후기 성인의 애착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을 밝힌데 있다. 조절변인을 밝히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변인들에 대한 개입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셋째 의의는 애착의 여러 유형을 측정해서 안전애착, 회피애착, 불안애착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는데 있다. 또한 안전애착을 두 가지로 측정하여 일관적인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한계점 및 추후 분석사항으로는 첫째, 횡단적 연구로 인해 변인들 간의 인과성을 확실히 밝히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안녕감과 애착간의 관계에서도 양방향의 영향이 모두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경우 응답자가 너무 적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는 단점이 있었다. 추후 이 부분을 보완하는 연구의 진척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인해 측정을 엄밀하게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일부 척도들의 신뢰도가 낮은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노인들인 탓으로, 기억력의 한계와 체력적인 한계, 이해력의 한계로 인해 데이터에 오차가 더 많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사 대상

www.kci.go.kr

이 미국내 한인 노인이라는 한계점 및 제약요소가 있을 수 있다. 미국내에 거주한 한인들의 역사가 응답수치들에 반영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남현주, 이현지 (2005). 여성 노인이 지각하는 통제감이 우울감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7, 255-277.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이주일 (2004). 노인의 대인애착 경향과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활동 및 지지적 관계의 추구. 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8(2), 11-29.

이주일, 이정미, 정지원 (2006). 미국 거주 한인 노인과 국내 노인간 행복감의 차이 및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2(5), 169-203.

장유리, 이정남, 윤현숙, 김수영 (2008). 노년기 자기통제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노년학, 28(4), 1055-1068.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Bartholomew, K., & Horowitz, L.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 Vol. III. Loss and depression.* London : Hogarth Press.

Bradley, J. M., & Cafferty, T. P. (2001). Attachment among older adults : Current issue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3(2)*, 200-201.

Carstensen, L. L., Issacowitz, D. M., & Charles, S. T. (1999). Taking time seriously : A theory of socioemotional selec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4*, 165-181.

Cicirelli, V. G. (1996). Emotion and cognition in attachment. In C. Magai & S.H. McFadden(Eds), *Handbook of emotion, adult development and aging*(pp. 119-132). San Diego, CA : Academic Press.

Doherty, N. A., & Feeney, J. A. (2004). The composition of attachment networks through the adult years. *Personal Relationships, 11,* 469-488.

George, C., Kaplan, N., & Main, M. (1996). *Adult Attachment Interview Protocol*(3rd ed.).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Greenberg, M, T. (1982).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Inventory of Adolescent Attachment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Washington.

Greenberg, M. T. , Siegel, J. M., & Leitch, C. J.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5),* 373-386.

Hazan, C., & Shaver, P. R. (1993).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Hunter, J. J., & Maunder, R. G. (2001). Using attachment theory to understand illness behavior. *General Hospital psychiatry, 23*, 177-182.

Johnston, R. A. (1981). *The relationship between locus of contro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elderly female nursing home resi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at Baltimore.

Kleftaras, G. (1997). Control-related belief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a semi-institutionalized population of French elderly persons. *European Review of Applied Psychology, 47(3)*, 225-230.

La Guardia, J. G., Ryan, R. M., Couchman, C. E., & Deci, E. L. (2000). Within-person variation security of attachment : A self-determinism theory perspective on attachment, need fulfillment,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9(3),* 367-384.

www.kci.go.kr

Maslow, A. H. (1965). *Eupsychian management.* Homewood, IL : Irwin.

Meredith, P., Ownsworth, T., & Strong, J. (2008). A review of the evidence linking adult attachment theory and chronic pain : Presenting a conceptual model. *Clinical Psychological Review, 28,* 407-429.

Miesen, B. M. L. (1998). Attachment behavior in dementia : Parent Orientation and Parent Fixation(POPFID) theory. In G.H. Pollock & S. I. Greenspan(Eds), *The course of life : Vol.7. Competing the journey* (pp.197-229). Madison, CT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Mikulincer, M., & Florian, V. (1996). Emotional reactions to interpersonal losses over the life span :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In C. Magai & S.H. McFadden(Eds), *Handbook of emotion, adult development and aging*(pp.269-285). San Diego, CA : Academic Press.

Mirowsky, J., & Ross, C. E. (1991). Eliminating defense and agreement bias from measures of the sense of control : A 2×2 index. *Social Psychological Quarterly, 54,* 127-145.

Park, D., & Vandenberg, B. (1994). The influence of separation orientation on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Ageing and Human Development, 39*, 177-189.

Parkes, C. M. (1991). Attachment, bonding, and psychiatric problems after bereavement in adult life. In C. M. Parkes, J. Stevenson-Hinde, & P. Marris (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pp.268-292). New York/London : Tavistock/Routledge.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val v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s. *Psychological Monographs, 80*, 1-28.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Sable, P. (1989). Attachment, loss of spouse and grief in elderly adults. *Omega : Journal of Death and Dying, 35*, 9-24.

Scharlach, A. E. (1991). Factors associated with filial grief following the death of an elderly par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1*, 307-313.

Scultz, R., Biegel, D., Morycz, R., & Visintainer, P. (1989). Psychological paradigms for understanding caregiving. In E. Light & B. D. Lebowitz(Eds), *Alzheimer's disease treatment and family stress : Directions for research*(pp.106-121).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llhagen, M. W., Strawbridge, Kaplan, G., & Cohen, R. (1994). Impact of internal health of locus of control on health outcomes for older men and women : A longitudinal perspective, *The Gerontologist, 34*, 299-306.

Warr, P. B. (1987). *Work,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Oxford : Clarendon.

Wei, M., Shaffer, P. A., Young S. K.,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shame, depression, and loneliness : The mediation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591-601.

Wensauer, M., & Grossman, K. E. (1995). Quality of attachment representations, social integration, and use of network resources in old age. *Zeitschrift fur Gerontologie und Geriatrie, 28*, 444-456.

Wolinsky, F. D., Wyrwich, K. W., Babu, A. N., Kronke, K., & Tierney, M. (2003). Age Ageing, and the sense of control among older adults : A longitudinal reconsideration. *Journal of Gerontology : Social sciences, 58B(4)*, S212-S220.

Wolinsky, F. D., Wyrwich, K. W., Kronke, K., Babu, A. N., & Tierney, M. (2003). Personal stress, mental health, and sense of control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 Social Sciences, 58B(3)*, S146-S150.

www.kci.go.kr

韓國心理學會誌: 社會 및 性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09, Vol. 23, No. 2, 81~101

Impacts of Need Satisfaction and Sense of Control on Older Adult Attachment and Attachment antecedents

Juil Rie Yeonwook Kang Kunseok Park Kyung Ryu

Hallym University

In this study, we collected data about factors affecting attachment of older adult. Especially, we want to identify effects of need satisfaction and sense of control about attachment formation of older adults. And we want to identify moderating effects of need satisfaction and sense of control in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As has been predicted, subjective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self rated satisfaction about children, satisfaction about self health, satisfaction about family economic status were more important to attachment formation of older adult than objective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age, sex, education level, number of children. Need satisfaction and sense of control explained significantly secure attachment and anxious attachment after controlling demographic variables. Further, need satisfaction and personal control played a role as moderator variables between attach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Keywords: need satisfaction; sense of control; adult attachment; well-being; attachment antecedents

1차원고 접수일 : 2009년 3월 15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9년 5월 25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5월 26일

www.kci.go.kr